

동남아 CM협력사업의 개요와 연혁



정병호 한국CM협회 건설산업연구센터 센터장, yhc@cmak.or.kr
박영덕 한국CM협회 대리, cosmoscrab@cmak.or.kr

1. 동남아 CM협력사업의 개요

1.1 추진배경

동남아 CM협력사업은 “해외 인프라건설 수출지원 사업”의 하나로 동남아 지역 국가에 우리나라의 CM제도와 Know-How를 전수하여 우리 CM체계의 현지화를 통하여 우리 건설기업의 대상국의 사업 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발주 예상Project에 대한 진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상국과는 협력위원회 구성·운용을 통한 기술 및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상국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3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CM협회와 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1.2 사업의 주요내용

동남아 CM협력사업의 주요내용은 ① 대상국의 건설법령, 관행, 기술수준, 시장전망 등을 조사하며, ② 국내·외 CM업체의 현지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하고 ③ 현지 공무원과 건설기술자들의 CM 이해수준·역량·필요(needs)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방안,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검토하면서 ④ 건설협력위원회를 통해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한국 친화형 CM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⑤ 대상국의 건설협력위원회에서 공동사업 추진을 지속 논의하고, 해당 국가 담당자 의견수렴을 거쳐 CM제도를 보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 실천과제로는 ① 대상국의 건설환경 등 시장조사 ② 건설시장 진출 전략수립 ③ 건설협력 Network 프로그램 구

성 및 활성화방안 수립 ④ 시범사업 발굴 ⑤ 대상국가의 CM 역량 현황 및 건설사업 생산성 분석 ⑥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발굴 프로세스 모델 개발 ⑦ CM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내전문가 역량체계 구축 등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해외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2. 동남아 CM협력사업의 연혁 및 성과

2.1 캄보디아로부터 출발

동남아 CM협력사업의 출발은 캄보디아에서 출발하였다. 캄보디아는 건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시스템 등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한 상태이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건설시장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산업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실적을 토대로 형성된 우리나라의 CM모델을 도입하려고 2010. 12 한국건설관리협회에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우리정부와 협의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캄보디아에서의 성과는 2014. 2. 4. 캄보디아 건설부장관, CCA회장, 한국CM협회장 3자간에 체결한 CM 시범사업 3자 합의문 서명이다. 이를 통하여 캄보디아 Olympia City Project에 국내 CM 전문기업인 신화엔지니어링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한 이후 이를 토대로 하여 미화 50만 달러 규모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캄보디아 건설부에 CM 관련법의 하위규정인 건설부령을 제공하는 등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국내 CM전문기업을

표1. CM협력사업 연혁

| 사업명 | 사업기간 |
|---|-------------------------|
| 캄보디아 CM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 2013.05.31 ~ 2014.05.30 |
| 1. 캄보디아 한국친화형 CM업무매뉴얼 개발 2. 캄보디아에 적합한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한·캄보디아 양국간의 파트너링 모델 개발 3. 캄보디아 CM정착을 위한 기술환경조사, CM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4. 캄보디아 중점 인접국 진출방안 수립 | 2014.08.01 ~ 2015.07.31 |
| 미얀마 건설사업관리(CM) 공급사업 연구용역 | 2015.02.09 ~ 2015.12.05 |
| 베트남 건설사업관리(CM) 공급사업 및 사후관리 연구용역 | 2016.02.26 ~ 2017.01.20 |
| 베트남 등 3개국 건설사업관리(CM) 사후관리 연구용역 | 2017.04.06 ~ 2017.12.21 |
| 인도네시아 CM공급사업 및 베트남 등 3개국 사후관리 연구용역 | 2018.05.08 ~ 2018.12.21 |
| 동남아 CM공급사업 대상국가 중심 진출기반 확산 연구용역 | 2019.06.05 ~ 2020.03.31 |

중심으로 현지 Project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동남아 CM협력사업 연혁은 위 표와 같다.

2.2 사업대상국의 확대

해외건설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사업관리(CM) 진출 확대 및 진출국 확대 다변화가 필수적이고 아세안(ASEAN)지역 국가들은 높은 경제 성장과 풍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각종 건축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수요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 건설 및 CM기업의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자 동남아 CM협력사업은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2015년 미얀마, 2016년 베트남, 2017년에는 위의 3개국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으며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를 대상국으로 추가하였다.

CM 체계의 현지화 과정 지원을 통해 우리 건설기업 및 대상국의 건설사업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대상국 및 주변국의 발주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국내 CM 및 건설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대상국에 CM제도 및 매뉴얼의 프레임워크 개발, 전문가 양성, 기술개발 프로그램 지원 및 양국 간 건설산업 발전과 우리 업계의 협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양국 민간기업간에 체결된 협력기구인 건설협력위원회(Vietnam-Korea Construction Collaboration Committee)의 설립이다. 우리나라 12개 기업과 베트남의 11개 기업이 결성한 건설협력위원회는 그간 정부 또는 단체차원에서 수행한 협력사업을 민간으로 확산시켜 Project 단위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양국 업체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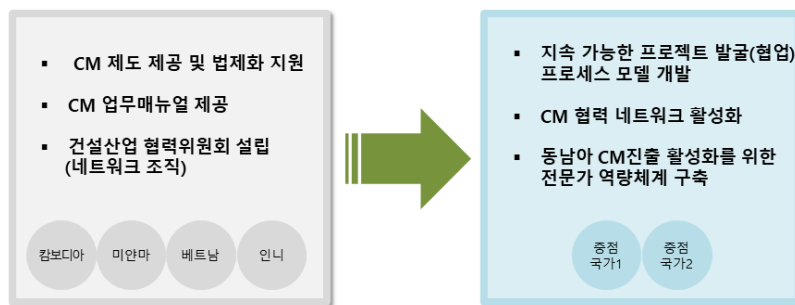


표2. 국가별 CM협력사업 수행성과

| 연구성과 항목 | 캄보디아 | 미얀마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
| 1. MOU 체결을 통한 협업 근거 마련 | (1)건 체결 | (1)건 체결 | (5)건 체결 | (2)건 체결 |
| 2. 협력위원회 구성을 통한 협업 기반 구축 | (-)개 참여 | (14)개 참여 | (23)개 참여 | (14)개 참여 |
| 3.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교류 및 국내업체 소개 | (2)건 개최 | (1)건 개최 | (4)건 개최 | (2)건 개최 |
| 4. 교육 및 지도활동을 통한 기술전수 및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 (2)건 개최 (80)명 참여 | (6)건 개최 (140)명 참여 | (1)건 개최 (30)명 참여 | (1)건 개최 (64)명 참여 |
| 5. 규정 및 절차서 등의 공급을 통한 제도 기반 구축 추진 | (1)건 추진 | (1)건 추진 | (1)건 추진 | (1)건 추진 |
| 6. 테스트 프로젝트를 통한 현지 기술수준 분석 및 수주 가능성 타진 | (-)건 추진 | (2)건 추진 | (18)건 추진 | (6)건 추진 |
| 7. CM사업 수주 활동 지원(상대국 발주자 면담 주선 등) | (2)건 추진 | (4)건 추진 | (3)건 추진 | (3)건 추진 |

표3. 중점국가 선정 고려 요소

| 정량적 평가항목 | + | 정성적 평가 항목 |
|--|---|--|
| [시장성 지표] 건설산업규모, 건설산업 성장률, 인프라 투자 수요, GDP 대비 건설산업 비중,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도시화 비중, 외국인 직접투자(FDI)규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M 시장 수요 전망(단기 및 중장기) • CM 필요성 인식 수준 • CM 시스템의 제도화 의지 • CM 시장 진출을 위한 상대국 파트너의 역량 • CM 시장 개척에 대한 상대국 정부 협조 수준 |
| [안정성 지표] 인플레이션, 물류지수(LPI), 국가신용등급, 건축인허가, 법적분쟁 해결, 세금 납부, 부패인식지수,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 | | |

표4. 동남아 4개국 대상 종합평가 결과

| 구분 | | 평가점수 | | | |
|--------|----------|------|-------|------|------|
| |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 정량적 평가 | 건설시장 성장성 | 2.48 | 8.69 | 2.72 | 3.71 |
| | 사업수행 안정성 | 3.50 | 8.23 | 2.91 | 8.42 |
| 정성적 평가 | | 1.46 | 4.13 | 1.83 | 3.37 |

참여하는 등 교류가 활발하며 이러한 민간주도의 협력 방식은 다른 협력대상국 모두에 확산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표2)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고 진출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현지 건설 산업에서의 친숙도 향상 및 대상국과의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3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수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4개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상국의 건설시장 성장성, 사업수행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상국을 구분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대상국을 구분한 경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현실적 제한과, 사업진행의 세부단계마다 긴 시간이 필요한 대상국의 특성도 고려하였다. 선정기준은 정량적 평가와 연구진 및 외부전문가의 정성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2개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3. 향후 사업 추진 방향

올해에도 협력사업은 계속진행 된다. 정부에서도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선정한 중점대상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CM전문기업의 Project 수주를 직접 지원하여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과의 다자협력과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국가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우리 CM전문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대상국은 젊은 국가이며 역동적이다. 사업의 기회가 도처에 있고 Project 발주물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난 6년간의 협력사업을 통해 대상국의 정보와 인적 Network도 잘 구성되어 있다. 이 정보와 Network은 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한 우리의 자산이다. 우리 CM전문기업의 적극적인 도전을 기대한다.